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장창곡(張昌曲)*

이지연(李之連)**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개발된 척도가 없어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대신 사용했던 진학준비행동관련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한 진학준비행동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진로준비행동과 진학준비 참고하여 이론적 구인체계를 구성하고 예비문항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예비 행동의 개념이 포함된 선행연구와 고등학교 진로진학전문가들의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이론적 구인체계를 구성하고 예비문항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문항을 제작하여 341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최적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축 요인법을 사용하였으며 유의미하게 해석 가능한 요인 패턴을 찾기 위해 배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 부하량이 .4 이상인 문항을 추출한 결과 3개 요인과 17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개 요인을 '학습노력 행동', '진로탐색 행동', '진학정보탐색 행동'으로 명명하였으며, 예비 연구와 본 연구 자료 수집결과를 분석하여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 17문항은 문항-전체 간 상관이 높고, 내적합치도로 알아본 결과 신뢰도도 만족할 정도로 높았다. 또한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진로성숙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은 진로성숙도와 자아정체감과 모두 정적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주요어 : 진학준비행동, 척도 개발, 척도 타당화, 진로상담, 진로준비행동, 진로진학상담

* 제1 저자, 인천대학교

** 교신저자: 이지연, 인천대학교 교육학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Tel : 032-835-8160, E-mail : becoming@incheo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현대의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직업의 종류도 세분화 및 전문화되고 있으며,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직업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취적인 진로개척 역량과 태도 함양이 중요하다. 2014년 교육기본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99.9%가 중학교로 진학하고, 중학교를 졸업한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70.9%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 진학한다고 한다면, 일반고로 진학한 학생들은 고등학생 시기에 상급학교 진학 즉, 대학 진학은 학생들의 현실적인 진로목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는 직업환경이나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탐색하는 과정이었다면 고등학생 시기는 구체적인 진로목표에 대해 준비하는 시기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 등 취업을 목표로 진학하는 고등학생과는 달리 일반학생들은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 즉, 고등학교 시기에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진로목표에 맞게 진학해야 할 대학교나 학과를 결정하여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즉, 체험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이나 내신성적관리,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관리 등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시기가 고등학생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동이 필요하게 되며, 진로준비행동은 결국 진학준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 등 대학에 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3학년 학생들은 현실적인 점수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하지만, 1,2학년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의 진로진학상담 장면에서는 상담받고자 하는 주제가 “현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어디쯤인가요?”, “제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가 00대 00학과인데, 그 목표를 이루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어야 하나요?”,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나요?”, “저에게 적합한 전형은 무엇인가요?” 등으로 대학진학 준비와 관련된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2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진학이라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다면, 그 수준에 맞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노혜정(2004)은 진학준비행동을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한 전공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말

하며, 진학준비행동은 진로준비행동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진학과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진학결정을 위해 자아를 탐색하는 행동과 대학 및 전공을 탐색하는 행동, 결정된 진학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학준비행동 척도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척도였으며, 이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진학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안영수, 2001; 노혜정, 2004; 홍성욱, 2008; 유은주, 2007)에서도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활용하거나, 그 척도를 수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안영수(2001)는 일반계 고등학생 진학준비행동에 대한 연구, 노혜정(2004)의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에 대한 연구, 홍성욱(2008)의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에 대한 연구, 유은주(2007)의 예술고 무용과 학생의 진학준비행동에 대한 연구 등 진학준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김봉환(1997)에 의해 개발된 진로준비행동 척도였다. 이처럼, 진학준비행동 척도가 개발되지 않아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대신 활용하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진학준비행동에 대한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은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하고, 특히, 고등학생으로서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통한 진로선택, 대학 진학을 위한 입학 전형계획 등 입시정보 탐색, 대학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 및 수능모의고사 성적 향상 등 학습노력,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학교생활 관리 등이 포함 되도록 제작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진학을 전제로 입학한 고등학생의 경우는 대부분 대학진학을 목표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기(장창곡, 2012) 때문에 반드시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행동이 필요하며 기존의 진로준비행동 척도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행동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진로상담이나 진학지도 장면에서 적용하거나 지원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와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전략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행동 수준이 어떠한 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진단과 함께 차별적인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진학준비도를 높여가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학준비를 위한 행동으로 이끌어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거나, 진로를 결정하였더라도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할지를 모르는 학생은 고3 시기에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점수에 맞춰 진학하는 경향(장창곡, 2012)을 감안한다면 학급 담임교사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언과 조력을 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여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토대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맞게 진학이나 취업을 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2011년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교의 진로진학상담 장면에서 학생 개개인의 진학준비행동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진로진학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진로진학상담 장면이나 대학 진학을 위한 진학지도 장면에서 학생의 준비행동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지원 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과 구별되는 진학준비행동의 특성, 기존 연구의 제한점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에 포함될 구성개념을 담아낼 수 있는 척도와 문항을 개발하여 척도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가 소홀한 학생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적절한 조언과 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수준을 예측하여 진로진학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의 기초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분석

진학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진학준비행동에 대해 측정할 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진학'의 상위 개념으로서 '진로'라는 점을 감안하여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영수(2001)가 사용한 진학준비행동 척도는 내신성적관리, 수능성적 등 고등학생의 구체적인 진학준비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김봉환(1997)과 서진숙(1998)의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수정하여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로 활용한 것으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후의 진학준비행동관련 연구에서 검사도구로써 활용될 수 없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진학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상위개념인 진로준비행동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진학준비행동 척도가 개발되지 않아 진로준비행동 척도로 대체하여 활용되었다. 특히,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김봉환(1997), 박완성(2003)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진학준비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으로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진학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준비행동 척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진로를 결정한 이후 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노혜정, 2004)이라 할 수 있다. 사범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서진숙(1998)은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수정하여 대학생 대상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요인으로 추출된 하위요인으로는 ‘인쇄물을 통한 정보수집활동’, ‘구직활동’, ‘시험준비활동’, ‘사람과 일을 통한 정보수집활동’, ‘외국어공부활동’ 등 5가지이다. 또한, 박완성(2003)은 김봉환(1997)의 연구가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된 점에 착안하여 고등학생 대상의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하위 요인을 정보수집활동, 직업·학과 결정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 등 4개로 구분하였다. 즉, 김봉환(199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개발하였고, 서진숙(199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행동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박완성(2003)은 진로발달에서 진로준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개발하였다.

특히, 김봉환(1997)과 박완성(2003)은 지금까지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들은 대부분이 개인의 인지나 태도에 관련되는 사항이었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혹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하는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진로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정체성 등의 인식과 태도 측면의 주제들도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분야에서 중요하지만, 진로목표를 세운 후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고등학생의 진로의식 발달

진로발달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진로인식단계, 중학교의 진로탐색단계, 고등학교의 진로준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일반고등학교는 진로계획 및 준비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계속하여 진로탐색의 과정을 거쳐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준비단계로 연결되며, 대학진학 후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즉 직업선택에 들어가게 된다(장석민 외, 1988). 진로의식도 인지나 성격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성숙하는데, 각 연령대에 수행해

야 할 발달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달적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한 Super와 Ginzberg의 진로발달 이론을 살펴보면 Ginzberg와 동료들(1951, Zunker)은 진로발달 단계를 환상기(11세 이전), 잠정기(11~17세), 현실기(17세 이후)로 나누었는데 대학생들이 속하는 시기인 현실기를 다시 탐색기, 구체화기, 특수화기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자신의 흥미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입직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들고 있다. 또, Super(1957, Zunker)의 이론에서는 진로발달 단계를 성장기(14세 이전),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44~65세), 쇠퇴기(65세 이후)로 전 생애적 차원에서 구분하고, 탐색기를 다시 잠정기, 전환기, 실행기로 나누고 있다. 고등학생 시기는 탐색기 중에서도 전환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행동 실현을 위한 준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즉,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합리적 진로선택을 준비하는 시기이다(어윤경, 2010). 즉, 고등학생 시기는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는 진로탐색의 단계를 거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학 진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 진학준비행동의 위계

‘진학준비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모두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진학준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직업탐색행동’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여야 하고 다양한 유사 용어들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은 개인이 여러가지 직업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하고 영역을 확장하며, 그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결정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직업탐색행동은 대학을 진학하고, 직업을 준비하고, 취직하여 적응하기 위한 혹은 개인과 환경 정보를 얻기 위한 다양한 인지적, 행동적 활동을 포함한다(Blau, 1993). 둘째,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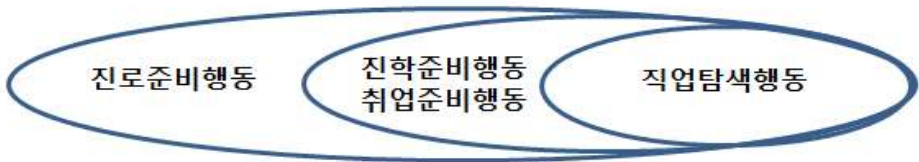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의 ‘진학준비행동’의 개념을 위계화할 수는 없지만, [그림 1]과 같이 이제경, 김동일(2004)이 제시한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의 관계를 토대로 진학준비행동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즉, 대학진학을 전제로 입학한 일반고와는 달리 취업을 전제로 입학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고려해볼 때, ‘직업탐색행동’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취업준비행동과 비슷한 위계를 갖고 있기에 ‘직업탐색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중간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의 관계(이제경, 2004)

‘취업준비행동’은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당면한 취업과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제경, 김동일, 2004)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의 진학준비행동의 당면한 대학진학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행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진학준비행동(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behavior)을 ‘대학진학을 준비하거나 일반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 혹은 당면한 대학진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진로준비행동, 진학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 개념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진로준비행동, 진학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의 관계

Ⅲ. 연구방법

1.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 개발

가. 연구대상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지 13부를 제외한 251부의 설문결과가 분석되었다. 학생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 168명(67%), 여학생 83명(33%), 1학년 140명(56%), 2학년 43명(17%), 3학년 68명(27%)으로 남학생과 1학년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나. 연구 절차

1) 교사 대상 개방형 설문조사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의 구성요인탐색을 위해 먼저 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대학진학업무 및 진학상담 경험이 풍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소속 교사 85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어떤 준비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한 교사의 지역분포를 보면, 서울 14명, 인천 15명, 경기 16명, 울산 5명, 부산 7명, 대구 5명, 제주 3명, 전남 5명, 전북 3명, 강원 5명, 충북 7명으로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가 절반 가량 되었다. 또한, 남교사 77명, 여교사 8명으로 남교사 비율이 높았다.

교사들의 설문 답변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로 탐색, 대학입시정보 탐색,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학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수 응답을 한 설문조사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전문가 상담 및 조언 청취 47명, 학업을 위한 향상 노력 43명, 대학입시 설명회 참석 35명,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위한 노력 32명,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교생활 27명, 대학진학을 위한 자기 점검 25명, 성실한 학교생활 26명, 기타 의견에 21명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문항분석 및 예비척도 구성

교사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와 기존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문항 분석을 실시하여 49문항의 최초 문항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적합하지 않은 문항,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문항, 모호한 문항을 제거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심리 측정 전문가 및 상담심리 박사 과정생들로 구성된 소집단 토론을 통해 검증을 3차에 걸쳐서 검토를 했다. 1차로

상담전공 교수와 측정전공 교수 1명으로부터 문항의 구성 방법과 내용에 대해 검토를 받았으며, 2차로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생 5명에게 구성개념의 적합성과 표현의 적합성을 검토 받았으며, 3차로는 1, 2차에 의해 수정 보완된 문항에 대해 상담전문가, 심리측정 전문가로부터 예비 문항으로서의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검토 받아 예비 척도로 40문항을 확정지었다.

3) 예비연구와 본연구 절차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해 설문조사를 예비연구와 본 연구 두 차례 실시하였다. 먼저 예비 설문조사는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의 문항분석과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준거타당도는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가 진학준비행동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와 진로성숙도 척도, 자아정체감 척도를 함께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타당화 검증을 수행하였다.

다.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예비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선정된 40개의 예비문항을 연구도구로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문항분석을 실시하고, 개별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하고, 문항과 총점 간 상관, 공통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았다. 문항분석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등학생 진학준비행동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였다. 선정된 문항의 요인구조를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 타당화

가. 연구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3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총 347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41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나. 측정도구

1) 진학준비행동 척도

진학준비행동 척도는 본검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의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진로성숙도 척도

진로발달검사 중 진학준비행동검사의 공인타당도 확인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이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독립성, 자기이해, 정보 활용 및 합리적 의사결정,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지식,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행동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계획성 .81, 일에 대한 태도 .68, 독립성 .79, 자기이해 .85, 정보활용 및 합리적 의사결정 .86,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지식 .96, 갖고 싶은 지식 .90, 준비행동 .70으로 보고되었다.

3) 자아정체감 척도

자아정체감의 측정도구로 Dignan(1965)이 개발한 'Ego-identity scale'을 기초로 서봉연(1975)이 번역하고, 한국의 대학생과 중고생에게 적합하도록 박아청(1996)이 수정하고 보완한 '한국형 자아정체감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자아정체감 측정도구는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으로 구성된 6개의 하위영역에 10문항씩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채점 31문항을 포함한다. 하위의 모든 영역에 대해 점수가 높으면 자아정체감이 높고 타인의 관계가 조화로우며 문제해결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아청(1996)이 제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다. 분석 방법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총 17문항의 고등학생의 진학준비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AMOS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수는 Tucker-Lewis Index(TLI 또는 NNFI, Bentler & Bonett, 1980)와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Steiger & Lind, 1980), Comparative Fit Index(CFI, Bentler, 1990)를 모델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고등학생 진학준비행동의 하위요인과 준거관련 척도인 진로성숙도 척도, 자아정체감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를 위해 TLI, CFI, RMSEA의 모델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 개발

예비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문헌연구, 내용타당도 분석을 통해 구성된 40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문항분석(item analysis)을 실시하여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진학준비행동의 하위 요인과 최종 후보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선정된 문항에 대해 내적 합치도를 통해 신뢰도 분석과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문항분석(Item Analysis)

문항분석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평균이 극단적인 값을 갖거나, 표준편차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문항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평균은 1.33 ~ 3.92점, 표준편차는 .47 ~ 1.16의 값을 보여. 평균값이 2점 이하인 문항 1번(친구들이나 선생님을 만나면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하며, 학교 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문항 3번(수업 시간에 수업태도가 나빠서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는 편이다), 문항 37번(대학진학을 위해 전화상담(1600-1615)이나 인터넷 상담을 하는 편이다)을 제외하였다. 이어서, 각 요인별로 문항 간 상관,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산출하고 내적 합치도를 검토한 결과, 문항간 상관은 .001 ~ .62에 분포하였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은 .18 ~ .68를 보였고 .30이하인 문항은 2개 문항(1번 문항, 3번 문항)이었으며 이미 앞서 제거가 되었다. 또한, 문항 내적합치도를 검토한 결과 전체 .932로 자기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를 증가시키는 문항 1문항(3번 문항)으로 역시 앞서 제거가 되었기에 문항분석결과 3개 문항을 삭제하고 총 37개 문항을 이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탐색적 요인분석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예비척도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37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WIN 18.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7문항에 대하여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분해방법으로는 주성분 분해법을, 회전방식으로는 하위 요인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베리믹스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을 때 고유값이 1보다 큰 요인이 9개로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량은 .642이었다. 즉,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를 제작하기 위해 예비문항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하위요인은 3개 였으며, 박완성(2003)의 연구에서도

대학진학을 전제하는 일반고 학생과 관련없는 취업준비활동 요인을 제외하면 3개의 요인이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진로목표를 세운 후,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 대학이나 학과의 정보를 탐색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하며 노력하는 일련의 학교생활을 고려할 때 3개 요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보다 의미 있는 요인구조를 찾기 위하여 스크리 도표의 하락율, 요인부하량,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3개의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요인을 구성하고 조직화하는데 있어 요인에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 Floyd와 Widaman(1995)는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문항의 요인부하는 일반적으로 .30~.40보다 커야 한다. 둘째, 한 문항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부하되었을 때 그 부하량의 차이가 .10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기준을 토대로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문항과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부하되었을 때는 .10미만의 차이를 보인 문항을 삭제하여 문항을 선정하고 요인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5번(대학진학에 대해 친구, 부모님, 친척들과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12번(동아리를 선택할 때 나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 2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2개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부하된 문항 중 7번(내가 관심있는 대학이나 학과에 입학이 가능한 내신성적, 수능성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16번(나의 소질과 적성, 흥미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는 편이다), 19번(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27번(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가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체크하거나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35번(담임교사, 진로교사 등과의 상담을 통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등 5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삭제된 문항은 총 7문항이며 나머지 30문항으로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 수 지정 후 요인분석의 결과를 통해 요인부하값이 높은 문항과 해석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총 13문항이 제거되어 17문항이 선정되었다. 요인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1의 요인부하량은 .51~.77로 전체 변량의 35.65%를 설명하였으며, 요인 2의 요인부하량은 -.54~-.77로 전체 변량의 10.80%를 설명하였고, 요인 3의 요인부하량은 .27~.69로 전체 변량의 8.65%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세 요인들에 의한 총 설명변량은 55.10%이었고, 세 요인 간 상관은 요인 1과 요인 2가 .43이었고, 요인 1과 요인 3은 .53이며, 요인 2와 요인 3은 .47로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요인 1은 고등학생으로서 대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활동에 대한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학습노력 행동'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대학교 진학목표를 세우기 전의 진로탐색활동과 관련되어 있어서 '진로탐색 행동'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3은 대학교 진학을 위한 각종 진학정보를 탐색하고 확인하는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진학정보탐색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

인의 문항 내적합치도 Cronbach의 α 값이 .80~.83으로서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해당 구인을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척도를 3개 요인을 유지하여 구성한 최종척도는 <표 1>과 같다.

<표 1>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의 요인구조와 문항내용(N=251)

하위 요인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공통분
학습 노력 행동	1. 내신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교의 수업시간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64	.98	-.60	.27	.57
	2. 야간 자율학습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꾸준히 공부하는 편이다.	3.47	1.06	-.34	-.38	.54
	3.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내신성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다.	3.01	1.00	-.11	-.30	.48
	4. 내신성적이나 수능성적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3.24	1.00	-.33	-.30	.50
	5.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 성적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다.	2.92	.97	-.05	-.13	.44
	6. 공부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역산)	3.02	1.02	-.05	-.26	.27
진로 탐색 행동	1. 내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나 학과는 뚜렷하다.	3.47	1.22	-.33	-.80	.67
	2. 내 삶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세웠다.	3.30	1.12	-.08	-.63	.59
	3. 내가 가지려는 직업의 특성이나 전망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한다.(역산)	3.53	.89	-.21	-.23	.51
	4. 내가 목표로 하는 진로(직업)에 대한 미래 전망이나 취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3.57	1.05	-.72	.20	.41
	5. 내가 성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진로·직업)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역산)	3.39	1.21	-.23	-.93	.51
진학 정보 탐색 행동	1. 대학에서 보내오는 정기적인 잡지나 대학신문을 받아보거나, 도서관에서 이 자료들을 자주 읽어보는 편이다.	2.31	.94	.48	.01	.41
	2. 각종 대학진학 정보를 얻기 위해 입시설명회, 박람회, 대학별 설명회에 참석하는 편이다.	2.59	1.02	.30	-.53	.51
	3. 진학하려는 목표 대학이나 학과를 정해 책상에 붙여 놓고 자주 바라보거나, 생각하며 목표의식을 다진다.	2.39	.96	.45	-.18	.44
	4. 대학 입시관련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EBS(수능)나 사설업체(학원 등)의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다.	2.71	1.01	.25	-.39	.43
	5.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을 찾아보거나, 다운받아 정독하는 편이다.	2.61	1.14	.48	-.45	.45
	6. 내가 관심있는 대학이나 학과를 직접 방문하여 탐방해 보았거나, 혹은 방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2.65	1.26	.40	-.86	.39

다.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최종척도의 신뢰도 분석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를 제작하기 위한 예비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3개 요인 17문항으로 구성된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의 하위요인과 전체척도에 대해 각각 내적합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를 검토해 보았을 때, 요인에 속해있는 각 문항들은 충분히 내적 합치도가 높았으므로($\alpha = .80 \sim .83$) 이들은 각각 해당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판단하였다. 최종척도에 포함된 문항에 대한 문항분석, 상관 및 내적 합치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요인의 평균은 2.31 ~ 3.64, 표준편차는 .89 ~ 1.26사이의 결과를 보였다. 요인 간 상호상관은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43 ~ .53), 중간수준의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는데 '학습노력 행동' 요인은 .83, '진로탐색 행동' 요인은 .81, '진학정보탐색 행동' 요인은 .80으로 .80 ~ .83 사이였으며 문항수를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89로 나타났다.

<표 2> 척도의 하위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내적합치도 및 하위 요인 간 상호상관

	M(SD)	학습노력 행동	진로탐색 행동	진학정보탐색 행동	전체
학습노력행동	3.22(1.00)	1			
진로탐색 행동	3.37(1.11)	.49**	1		
진학정보탐색 행동	2.54(1.05)	.53**	.52**	1	
전체	3.04(.62)	.81**	.82**	.83**	1
전체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					.89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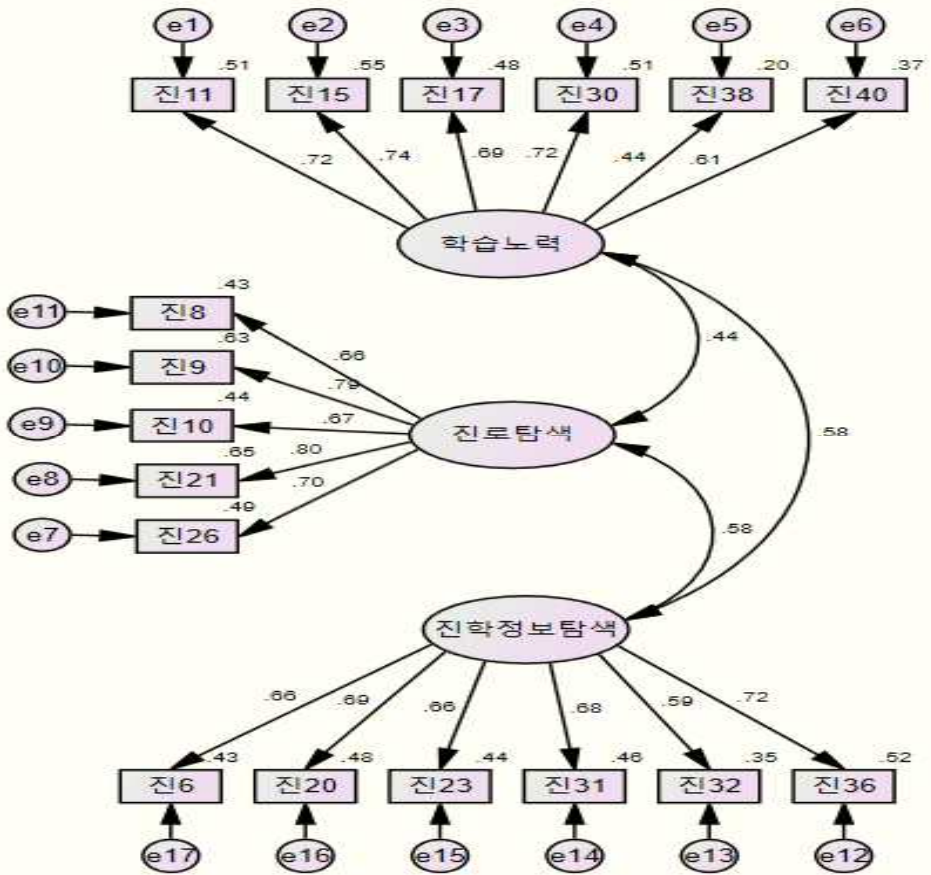
2.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 타당화

예비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다른 집단에도 적용가능한 지 아니면 예비 연구의 표집에 국한된 결과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개발된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와 진로성숙도 척도, 자아정체감 척도를 함께 연구하여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타당도 관련 변인으로 진로성숙도, 자아정체감을 살펴보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자아를 이해하고 이와 동시에 직업이라는 일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미래에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계획해나가는 과정에서 각 발달과업

의 수행정도를 동일한 연령층과 비교하여 나타난 직업준비 정도로 정의하며 진로성숙도는 진로 준비행동을 73.2%를 설명한다(서일범, 2008). 또한, 자아정체감은 '원가족에 대한 아는 것', '나의 과거 관계에 대해 아는 것', '과거와 현재를 잘 조화시키는 것', '과거부터 중요한 사람과 적절히 만나는 것',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것' 등을 통해 달성되는 것(Thoburn, 1988)으로, 이것은 어느 한 순간 달성되지 않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행동에서 정체성 확립은 중요하며 특히, 자아정체감의 하위 요인 중 미래확신성과 주제성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선욱, 2015)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가. 확인적 요인분석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문항에 대해 3요인구조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모형에 대해 적합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요인의 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보다 잘 설명하는지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 과 같이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의 하위 요인별로 5~6개의 문항을 연결하였다. 즉, 학습노력 행동 요인과 진학정보탐색 행동 요인은 6개의 척도를 연결했고, 진로탐색 행동 척도는 5개의 척도가 연결되었다. 측정모델의 적합도(Goodness-of fit)평가를 위해 사용된 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카이 자승의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ucker-Lewis Index(TLI 또는 NNFI, Bentler & Bonett, 1980)와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Steiger & Lind, 1980)등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를 측정하는 Comparative Fit Index(CFI, Bentler, 1990)를 적합도지수로 사용하였다. TLI(또는 NNFI)는 대략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는 $RMSEA < .05$ 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 .08$ 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 < .10$ 이면 보통 적합도, $RMSEA > .10$ 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홍세희, 1999).



[그림 3] 고등학생 진학준비행동의 요인구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결측치가 없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최종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N=341)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모형1(1요인모형)	410.897	116	.910	.923	.066

나. 상관분석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과 관련이 깊은 다른 척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검사 실시에 진로성숙도 척도, 자아정체감 척도를 함께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과 진로성숙도 척도, 자아정체감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하면,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은 진로성숙도와 $r = .67, p < .01$ 의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정체감과도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r = .63, p < .01$)을 보였다. 따라서 진학준비행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 학생은 진로성숙도가 높고 자아정체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하위요인과 진로성숙도 간에는 .24 ~ .66으로 학습노력 행동 요인은 상관이 낮았지만, 진학정보탐색 행동 요인과 진로탐색 행동 요인은 중간 이상의 정적상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하위요인과 자아정체감 간에도 .21 ~ .63으로 역시 진로성숙도 척도와의 상관과 유사하게 학습노력 행동 요인은 낮은 상관을, 진학정보탐색 행동 요인과 진로탐색 행동 요인은 중간 이상의 정적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탐색 행동 요인은 다른 요인들보다 진로성숙도, 자아정체감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이 진로성숙도, 자아정체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결과는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척도 간 상관은 <표 4>와 같다.

<표 4>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과 진로성숙도, 자아정체감 간의 상관(N=341)

	구분	진로성숙도	자아정체감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학습노력 행동	.24**	.21**
	진학정보탐색 행동	.50**	.47**
	진로탐색 행동	.66**	.63**
	전체	.67**	.63**
<i>M</i>	3.04	3.77	3.57
<i>SD</i>	.55	.41	.55

** $p < .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선, 예비연구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3요인 구조를 발견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의 적절성과 관련 변인인 진로성숙도 척도, 자아정체감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봄으로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의 구인을 탐색하기 위해 고등학생에 대한 대학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소속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진학준비행동관련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비문항 40개를 만들고 수도권 소재 고등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문항에 대한 구조를 살폈다. 문항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가 극단값을 갖는 3개의 문항을 제거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부하량이 낮거나 2개 요인에 걸쳐 부하된 7개 문항을 추가로 제거한 30문항을 이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와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3개의 요인으로 지정한 후 요인분석의 결과를 통해 요인부하값이 높은 문항과 해석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총 13문항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17문항이 선정되었다. 즉,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는 3개 요인 17문항으로, 하위 요인은 학습노력 행동, 진로탐색 행동, 진학정보탐색 행동으로 구성하였다. 요인 1은 6개 문항이며, 고등학생으로서 대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활동에 대한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학습노력 행동’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5개 문항으로 대학교 진학목표를 세우기 전의 진로탐색활동과 관련되어 있어서 ‘진로탐색 행동’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3은 6개 문항으로 대학교 진학을 위한 각종 진학정보를 탐색하고 확인하는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진학정보탐색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를 검토해 보았을 때, 요인에 속해있는 각 문항들은 충분히 내적 합치도가 높았으므로($\alpha = .80 \sim .83$) 이들은 각각 해당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판단하였다. 최종척도에 포함된 문항에 대한 문항분석, 상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요인의 평균은 2.31 ~ 3.64, 표준편차는 .89~1.26사이의 결과를 보였으며 요인 간 상호상관은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43 ~ .53), 중간 수준의 관련성을 보였다.

둘째, 새로 구성한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의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116, N=341)=410.897, p<.05$, CFI .923, TLI .910 으로 나타나 양호한 값을 보였고, RMSEA도 .066(90% 신뢰구간)로 양호한 적합도로서의 가이드라인(Browne & Cudeck, 1993) .08 이하를 만족시켰다. 최종척도에 포함된 각 하위 요인 간 상호 상관이 학습노력 행동과 진로탐색 행동이 .49, 학습노력 행동과 진학정보탐색 행동이 .53, 진로탐색 행동과

진학정보탐색 행동이 .52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최종척도에 대한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83, .81, .80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 역시 .89로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진학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진학준비행동 척도가 개발되지 않아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던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새롭게 개발한 진학준비행동 척도로 대체하여 사용한다면 연구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진로성숙도와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과 진로성숙도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특히 진학준비행동 하위 요인 중에서도 진로탐색 행동이 진로성숙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노력 행동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학습 노력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진로탐색의 과정을 통해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끊임없는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탐색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자아정체성과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과 자아정체성 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특히, 진로성숙도와의 상관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하위 요인 중에서도 진로탐색 행동이 진로성숙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노력 행동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진학준비행동관련 연구에서 진학준비행동 척도 대신에 사용했던 진로준비행동은 자아정체감의 하위 요인 중 미래확신성과 주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정선옥, 2015)는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진학준비행동 역시 자아정체감과의 .627의 상관을 보이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학습노력 행동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진학준비행동 척도가 개발되지 않아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대신 사용하였지만, 새롭게 개발된 진학준비행동 척도를 연구에 활용한다면 다양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등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 좀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 척도는 3개의 요인구조 및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 척도이며, 다른 집단에도 적용 가능한 척도이며, 기존 진학준비행동관련 연구에서 사용하던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대체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몇 가지 한계점을 밝히고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일부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료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과 연구대상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지 않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등에 따라 진학준비행동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학준비행동 척도 하위 요인 중, 진학정보탐색행동 요인 문항 4와 문항 6은 5점 Likert 척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응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행위(입시정보 사이트 가입, 대학 방문 계획 수립)에 대한 열의의 정도를 감안하여 응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학준비행동의 척도를 개발한 것으로 일반고 학생 등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어렵기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준비행동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는 고등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학교 유형에 따라 진학과 취업으로 구분되는 고등학생의 상황에 적합한 준비행동에 대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타당도 확인을 위해 진로성숙도, 자아정체감의 소수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만을 확인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진학준비행동과 관련된 여러 변인 간의 관계를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진학준비행동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준비행동의 관련성 탐색도 가능할 것이며, 진로정체감, 진로탄력성, 학습효능감, 학업스트레스, 합리적 의사결정 등의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등학생의 진학준비행동 척도가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 장면에서 학생들의 진학준비행동 수준을 확인하거나 점검하고, 그 학생의 상황이나 수준에 맞게 구체적인 진로탐색 유도, 실질적인 대학 진학정보 탐색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조언 등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2014년 교육기본통계.
- 김계현(1997).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고영란(2015).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태도 성숙도 및 진로교육만족도의 조절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고향자(1992). 진로의사결정모형의 문헌적 고찰, **인간이해**, 16, 43-69.
- 노혜정(2004).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학결정, 진학준비행동 유형에 따른 불안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아청(1996b).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타당도 연구. **교육심리연구**, 10(3), 67-84.
- 박완성(2003). 고등학생 대상 진로준비행동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15(2), 121-143.
- 박완성(2007).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87-101.
- 박홍섭(2002). 인문계 고등학생 3학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불안이 진로의사 결정 유형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서일범(2008). 고등학생들의 Eysenck 성격요인과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서진숙(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안영수(2001).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학결정수준과 진학준비행동수준에 따른 진로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어윤경 (2010). 진로성숙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실현의 관계: 의사결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4(4), 1029-046
- 유은주(2007).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학생의 진학결정, 진학준비행동 유형에 따른 불안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순자(2012).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이지연(2007). 청소년의 진로개발 성과모형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0, 129-150.
- 이제경(199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 발달의 대학전공분야별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제경, 김동일(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5(4), 993-1016
- 이호진(2015).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내재적 직업가치의 매개효과 : 공업계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 이현숙(1998). 고등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 장석민 외(1998). **진학과 직업선택을 위한 고등학교 진로교육 지도안**, 한국교육개발원.
- 장창곡(2012). 고등학생 진로진학상담모형 개발에 대한 델파이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정선욱(2015). 대학에 진학한 시설 퇴소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영향요인(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1), 191-214.
- 정영공(2007).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진학상담 모형 구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진미경(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최근집(1998).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의식 및 진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최영미(1998).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의 네 가지 유형과 자아정체감과와의 관계 :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윤경(201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5), 2085-2097.
- 한국교육개발원(1992). **진로성숙도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허화주(1999). 고교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대학진학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홍성욱(2008).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학결정수준, 진학준비행동 유형에 따른 불안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홍세희(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적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혜경(1998). 진로결정상태 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 상태의 유형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Blau, G. (1994). Testing a Two-Dimensional Measure of Job Search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9, 288-312.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ayton, C. W. (1981). The young person's job search: Insights from a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21-333.

- Drier, H. N. (1980). Career information for youth in transition: The need, systems, and model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9*, 135-143.
- Gysbers, N. C., Heppner, M. J., & Johnston, J. A. (2003). *Career counseling: Process, issues, and techniques*. Boston, MA: Allyn & Bacon.
- Havighurst, R. J. (1970). *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NY: Harper & Row.
- Jones, L. K. (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 -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477-486.
- Kopelman, R. E., Rovenpor, J. L., & Millsap, R. E. (1992). Rationale and construct validity evidence for the job search behavior index: Because intention(and New Year's resolutions) often come to naugh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0*, 269-287.
- Larson, L. M., & Hepper, P. P. (1985). The relationship of problem-solving appraisal to career decision and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6*, 55-65.
- Speas, C. M. (1979). Job-seeking interview skills training: A comparison for four instructional techniqu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405-412.
- Str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Journal of Vocation Behavior, 22*, 191-236.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Super, D. E. & Nevill, D. D. (1984). Work role salience as a determinant of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 255-270.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Zunker, V. G.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 of life planning(6th)*. pp. 560-562 CA : Brooks/Cole.

* 논문접수 2015년 8월 10일 / 1차 심사 2015년 9월 7일 / 2차 심사 2015년 11월 20일 / 게재승인 2015년 12월 7일

* 장창곡: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 박사과정

* E-mail: changkog@hanmail.net

* 이지연: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 E-mail: becoming@incheon.ac.kr

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University Admission Preparation Behavior Scal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ang, Chang-kog*

Lee, Jee-Yon**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behavior Scale in High School Students. To this end, the preparation behavior and a preparatory course prior research that contains the concept of behavior and go high school career of open by referring to a survey showed that theoretical experts and to form the recruitment system and fill in the high school students conducted a preliminary study of 251 people It was, by making the main study by conducting a test targets 341 high school students were performing a validation.

Preparation revealing an interpretation as possible factors in the behavior lis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se factors. In order to extract the best of the factors to look for patterns spindle factors significantly interpretable factors were used the law to use a rotation Max Barry Act load factor is 0.4 or greater were selected items extracted result of three factors and 17 items in the final. The three factors extracted from the factor analysis 'behavior learning effort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as named university entrance exploration behavior', the pre-study and analyz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data collected by the scale of the behavior preparatory high school It was developed.

Preparation behavior scale 17 items are items of high school - a high correlation between overall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s so also my confidence out unsuitable roads. In addition, the measure compliance-related validity was carried out to verify the correlation of self - identity and career maturity and preparatory behaviors as a result of high school students showed a relatively high correlation with both static and career maturity and self-identity.

Key words: preparatory behaviors, scale, scale validation, career counsel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behavior

* Lead auth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